

수능 시간에 맞춰 신체리듬 조절

수능 D-38 수험생 막바지 준비 어떻게

일주일 중 하루는 낮설고 생소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경험을 문제집 단권화...본인 잘 하는 것·확실히 할 수 있는 것에 중점

오는 11월 14일 치러질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38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발표된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보면 올 수능 시험 난이도도 결코 낮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진학 전문가들은 곧 다가올 수능에 앞서 수시 접수를 한 뒤 들떠 있는 마음을 다잡고,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 신체리듬을 조절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한달여 남은 수능, 이것을 주의하자- 입시전문업체 진학사는 7일 "수험생들은 들뜬 분위기를 경계하고 신체리듬을 실제 수능에 맞춰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우선 진학사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여서 수험생들이 익숙한 분위기 속에서 학습에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어른들의 착각일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수시원서 접수 이후 수험생들은 들떠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개 수시지원 중 하나 정도는 불갓지' 하는 기대감에 학습 분위기가 해이해질 수 있어서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할 시기에 자칫 들떠있는 분위기에 휩쓸리 경우 실제 수능에서 평소 실력을 발휘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수능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2분(제2외국어 응시자 5시 40분)까지 치르기 때문에 남은 시간 신체리듬 조절은 필수다.

학교 수업은 실제 수능이 치러지는 시간

에 이뤄진다. 수업이 내신을 위해서만 필요하고 수능엔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여길 수 있으나, 수업 중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할 수 있고 고난이도 문제의 기초를 되짚어볼 수 있고 학교수업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자습시간에도 느긋함을 갖지 말고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짧게 잡고 압박감을 느껴보는 게 좋다. 실제 수능에서는 긴장감 탓에 평소와 달리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다. 이밖에 고만하며 문제 풀이를 하는 것은 저녁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다.

특히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활용하려고 조언했다. 시험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잠을 깨는 노력이 필요한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짧은 시간의 졸음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복도나 교정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걸을 수도 있고 간단한 간식을 먹는 것 등 어느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능은 모의고사와 다르게 생소한 곳에서 긴장 속에 치르게 됨으로, 책상과 의자 높이, 조명의 밝기, 방해하지 않는 환경 등 일주일 하루는 낯선 환경에서 공부해보길 권했다.

◇단기간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방법은?-국어의 경우 단기간 성적을 올리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화법과 작문의 경우 새로운 문제를 풀으려고 하기보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개념이나 문제들을 보며 익숙하

지 않은 것들을 추려 암기해야 한다.

독서의 경우 EBS와 연계된 소재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지문에 차이가 있다. 지문에 제시된 용어와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따른다. EBS 연계교재를 공부할 때 단순히 지문이 제시하는 내용 파악, 문제 풀이에만 집중하지 말고 생소한 개념을 정리해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수학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00점이 목표인 상위권 학생이라면 단연 고난도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평소 문제 풀이시 주어진 조건과 그에 따른 접근 방법 등을 정리한 뒤 반복해 복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위권 학생이라면 기출문제를 반복해 풀며 그 과정과 계산에 익숙해져야 한다. 하위권 학생이라면 채점하기 전 자신의 풀이과정을 살펴 실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다. 이후 채점하는 습관을 가지면 실제 시험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영어는 매일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꾸준한 단어 암기, 5-10지문 정도의 문제 풀이를 하는 것이 좋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의고사 연습을 하고, 시간 관리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9월 모평 이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계획 없이 이것저것 공부하는 경향이 있다"며 "문제집은 단권화하고, 수능영역이나 문제유형이나 새로운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인이 잘하는 것, 적은 노력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은 7일 오전 광주 북구청과 북부경찰, 북구보건소 등과 함께 하백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전남대, 스마트아쿠아팜 석·박사 과정 신입생 모집

전통 수산양식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융·복합 24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전남대학교가 전통 수산 양식 산업에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이 융·복합된 석·박사급의 연구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에 '스마트 아쿠아 팜 협동과

장'을 국내 최초로 신설했다.

내년 3월 개강할 '스마트 아쿠아 팜 협동과정'은 빅데이터·AI 기반 스마트양식을 도입해 주요 양식품목의 생산원가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등 오는 2030년까지 10조원 상당의 신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아쿠아팜4.0 추진 전략'과 부합된다.

이 협동과정 교수진은 해양수산부 수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인 스마트수산양식연구센터(센터장 김태호 교수)에 참

여하는 수산과학과, 수산생명의학과, 문화컨텐츠학과, 환경시스템공학과, 의공학과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재학생들에게는 국가연구비가 지급될 예정이며, 노르웨이 스타방게르대학(University of Stavanger) 등 해외 선진연구기관 방문 기회도 주어진다. 원서 교부 및 접수는 24일까지 전남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실시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취업역량 강화 '모의면접 프로그램' 실시

광주대학교(총장 김형중) 대학일자리센터는 최근 학교 호심관 강의실에서 재학생들의 취업준비와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실전경험을 높이기 위해 학부(과) 특성에 맞는 현장 취업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된 이번 모의면접 프로그램에는 보건행정학부 4학년 학생 50여 명이 참여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펼쳐진 모의면접 프로그램은 입사지원서 사전 점검, 교수진 및 외부 심사위원 면접 등으로 진행됐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대학생 금연사업단 '금연 UCC 공모전' 실시

동신대학교 대학생 금연사업단은 흡연에 대한 재학생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캠퍼스 내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해 최근 '2019년 금연 UCC 공모전'을 실시했다. 1등 1팀 30만원, 2등 2팀 20만원, 3등 3팀에게 각각 1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공모전에 제출된 UCC는 교양 수업 시간을 통해 금연 교육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2019년 대학교 금연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된 동신대는 금연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금연 홍보와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수학용어 말하기 한마당 '매스-톡' 예선 14일까지 접수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중·고 교생을 대상으로 '수학용어 말하기 한마당 매스-톡(MATH-TALK)' 예선 대회 응모를 14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교육과정에 있는 수학 내용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학생 수학 소통기'를 발굴하는 대회다.

참가 학생들은 난해한 수학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유와 적절한 예시를 사용해 3분 스피치를 선보이게 된다.

예선 참가를 원할 경우 1명 또는 같은 학년끼리 2명이 팀을 이룬 뒤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동강대-31사단, 광주 드론산업 성장 이끈다

군·학 협력 체계 구축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국가 신성장 동력인 드론산업의 지역 내 활성화를 위해 군·학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동강대는 최근 교내 본관 장원홀에서 이민숙 총장과 제31보병사단 소영민 사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학과 학위취득 희망자 교육 지원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동강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드론전문가 양성과 함께 관련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이번 협약은 호남권 전문대학 최초 드론과를 운영한 대학과 육군 드론봇 전투체계 시범부대가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동강대는 30여 종의 드론 장비 등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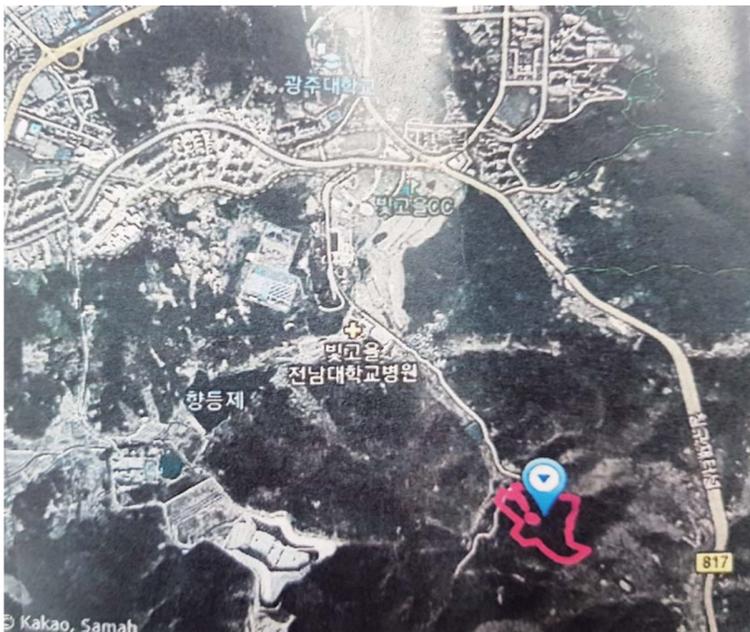
한 인프라를 활용해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더욱이 이번 협약에 앞서 광주 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단, 광주서부경찰서, K-water 영산강보관리단 등 여러 기관과도 손을 잡고 드론을 활용한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동강대 드론과는 올해 열린 고흥드론대 이상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참가 대부분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31보병사단도 육군 드론봇 전투체계 시범부대로 선정돼 드론 국방산업 발전에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이민숙 총장은 "동강대는 드론 산업 성장을 위해 일찌감치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인재를 키우고 있다. 31사단, 지자체 등과 발맞춰 앞선 결실을 맺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